安東權氏宗報 발행인 권영창 편집위원장 권태정 편집인 권행완 인쇄인 김갑기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 (02) 2695-2483~4 FAX : (02) 2695-2485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ver.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회
헌성금·회비·광고료·종보구독료 등 대종회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회

安東權氏宗報

宗是(종시)
崇祖理念 確立(숭조이념 확립)
愛族思想 鼓吹(애족사상 고취)
後學啓導 寄與(후학계도 기여)
社會倫理 培養(사회윤리 배양)

[월간] 2025年 10月 1日(수요일) ☎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6年 第 604 號

9월의 호국인물 권준 장군 현양 행사 개최

권영유 부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백승주 전쟁사업회 회장, 권영빈 중앙대 명예교수(왼쪽부터)

9월의 호국 인물 권준 장군(1895.5.2.~1959.10.27)에 대한 현양 행사가 9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양 행사에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성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최맹호 전 동아일보 대표이사와 권준 장군의 손자인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권영빈 중앙대 명예교수, 권영유 대영정공 부장과 함께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장, 권영기 검교공파 서울지회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맹호 전 동아일보 대표이사가 권준 장군의 약력을 발표했다. 최문주 학예사는 권준 장군은 1917년 경성공업전습소를 졸업한 후 박상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상하이로 건너가 국립 퉁지대학(同濟大學) 공과에서 수학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지린성(吉林省)에서 김원봉·윤세주 등 13명의 동지와 함께 의열단(義烈團)을 결성하였다.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였고, 졸업 후에는 중국 국민혁명군 장교로 임관하여 국민당 정부의 북벌에 참가하였다.

이후 권준 장군은 1934년 6월부터 난징에 있는 중국군 부대의 연장(連長;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1937년부터는 중일전쟁에 참전, 우한(武漢)과 장시성(江西省)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하였다. 1944년에는 충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내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는 광복 후 조국으로 돌아와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수도경비사령부 초대 사령관과 제50사단장을 지내며 독립군의 정신을 국군으로 이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 12월, 육군사관학교 8기 특별 1반으로 입교한 그는 육군 대령에 임관하였고, 1949년 7월 수도경비사령부(現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초대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준장으로 진급, 제1훈련소 소장, 제3관구사령관 등의 보직을 역임하며 을지, 충무,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였다고 공적을 낭독했다.

권준 장군은 정전 후 초대 제50보병사단장 직책을 마지막으로 군 경력을 마무리하였으며, 19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후 1959년 10월 27일, 충남 대덕군 구암리 자택에서 향년 6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유해는 1970년 11월 17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손자 권영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할아버지를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해 현양 행사를 개최해 주신 전쟁사업회에 감사드린다"라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애국을 위해 가족 모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증손자 권오영이 권준 장군을 닮아서인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를 졸업하고 대령으로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성구 수도기계화부대 사단장은 "우리 사단의 모체인 수도경비사령부 초대 사령관이 권준 소장님이라는 것이 항상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대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위치한 권준 장군의 묘(102번) 비문에는 "구한말에서 6.25까지 민족의 격동기를 보내신 백인(百忍) 권준(權晙, 重煥) 장군이 여기 잠들어 계시다. 상주의 명문 유가에서 출생하신 장군께서는 형극의 일생을 마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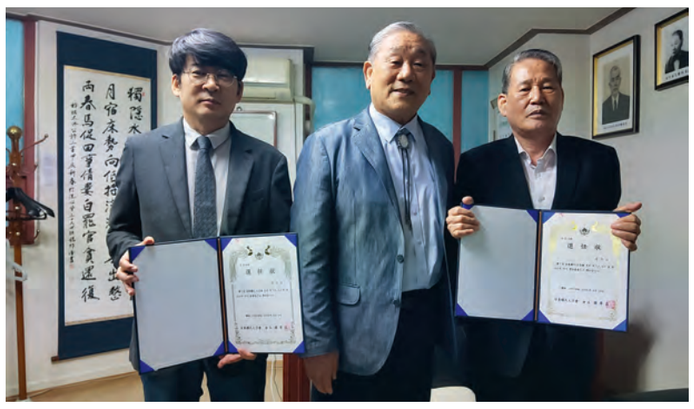
일찌기 기술입국의 웅지를 품고 학업을 시작하셨으나 타고난 강직함과 우국충정으로 중국에 망명 의열단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헌신하시었다. 대륙을 무대로 활약하시고 광복후 건군의 초석이 되신 장군은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정의를 숭상한 참 민족주의자이셨다"라고 새겨져 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은 안동권씨 대종회를 대표하여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권준 장군의 영전에 헌화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헌화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유 대영정공 부장,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영빈 중앙대 명예교수, 권영기 검교공파 서울지회 총무부장(왼쪽부터)

권영창 회장 부회장과 상임위원 임명



권건우 부회장, 권영창 회장, 권우순 부회장(왼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9월 16일 오후 2시에 권우순(權佑純, 부정공파 37世) 주)동신 부회장과 권건우(權建佑, 복야공파 35世) 위데이터랩(주) 대표이사를 대종회 부회장에 각각 임명했다.

권우순 부회장은 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와 안동권문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우순 부회장은 명심보감 교우편에서 "不結子花 休要種(부결지화 휴요종) 無義之朋 不可交(무의지붕 불가교)",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했듯이 가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건우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 박사를 취득했다. 삼성SDS를 거쳐 현재 위데이터랩(주) 대표이사이다.

또한 한국미술협회 서예부문 초대작가와 국제서법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세계진소왕태극권총회 서울분회장을 맡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年 10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25.9.8〉 권정식 부회장
〈'25.9.8〉 권우순 부회장
〈'25.9.8〉 권건우 부회장
〈'25.9.15〉 권우순 상임위원

<임원 회비>

종무위원

권병선(서울 동대문)	200,000	권용제(대전)	200,000
권동원(대전)	200,000		

이 사

권두현(수원)	300,000	권석원(경기 양주)	300,000
권대순(충남 계룡)	300,000	권이원(대전)	300,000

상임위원

권태복(서울 금천)	1,000,000
권용기(대전)	1,000,000

합계 : 3,8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